



KCC는 2021~2022시즌 9위에 그친 뒤 FA 시장의 큰 손으로 나섰다. 24일 포워드 이승현과 가드 허웅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다음 시즌 전망을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KCC 본사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승현, 전창진 감독, 허웅(왼쪽부터).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5년간 7.5억 동일한 조건 KCC행 이승현-허웅 “함께여서 더 좋다”

이승현 “허웅에게 같이 뛰자고 계속 설득했다”
허웅 “아버지 계신 데이원행? 전혀 고려 안해”

전주 KCC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포워드 이승현(30·197cm)과 가드 허웅(29·185cm)이 24일 서울 서초동 KCC 본사에서 입단식을 마쳤다. 둘의 계약조건은 동일하다. 계약기간 5년에 보수 총액 7억 5000만 원이다. 둘은 이날 행사장에서 직접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승현은 “학창 시절부터 KCC와 인연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자란 팀에서 뛰 수 있어 영광이다. 할 일이 많다. 책임감이 앞선다. KCC의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허웅은 “KCC는 애정이 있던 구단이다. 아버지와 연결된 부분이 많아 좋은 추억도 있다. 그런 팀에 오게 돼 기쁘다. (이)승현이 형과 함께여서 더 좋다”며 웃었다.

이승현은 허웅의 KCC 이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KCC와 만난 자리에서 허웅과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단이 흔쾌히 받아들여줬다. 또 KCC행이 결정된 이후 계속 허웅에게 전화해 같이 뛰자고 했다. 돈은 우리가 우습하면 많이 벌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허웅은 “(이)승현이 형이 엄청 연락했다. 용산중·고를 같이 나오고 상무에서도 함께 생활했다. 너무나 잘 아는 형이다. 승현이 형이 그렇게 말해주고 고맙다. 같이 뛰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허웅은 FA 시장 개장 이전부터 아버지가 사장을 맡을 데이원자산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데이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KCC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 좋은 환경이라고 하셨다. 구단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KCC 입단으로 허웅은 아버지인 허재 전 감독이 선수로 활약했던 팀, 지도자 생활을 한 팀에 모두 몸담게 됐다. 허웅이 프로에 데뷔한 원주 DB의 홈구장에는 허 전 감독의 영구결번 유니폼이 걸려있다. 허 전 감독은 KC C에서 처음 프로 사령탑에 올랐고, 팀을 챔피언에 등극시켰다.

KCC 전창진 감독은 “KBL을 대표하는 두 선수를 영입해 취약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게 됐다. 구단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인기구단으로 가는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본다”며 이승현과 허웅을 환영했다. 이어 “성적에 대한 부담은 감독이라면 매 시즌 갖기 마련이다. 늘 우승을 목표로 준비한다. 좋은 기량을 갖춘 두 선수와 기존 KCC 선수들의 시너지가 나면 다른 구단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팀이 될 것 같다. 선수들과 준비를 잘 해보겠다”며 정상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이승현은 2021~2022시즌 도중 발목을 다쳐 27일 수술을 받는다. 이승현은 “FA 협상 초기에 발목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KCC에 전달했다. 구단도 이해했다. 큰 수술이 아니라 리그 개막전 이전에 복귀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탕웨이 캐스팅, 정말 절박했다”

작가와 ‘중국인 여주인공’ 의기투합
대본도 없이 만나 번사처럼 떠들었죠
수상이나 흥행 기대에 대한 부담감?
재미있을지, 투자가 잘 될지만 걱정

박찬욱(59) 감독이 신작 ‘헤어질 결심’을 들고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 돌아왔다. 2018년 6부작 영국 BBC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을 선보이긴 했지만, 장편 영화는 ‘아가씨’ 이후 6년 만이다. 박해일과 탕웨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헤어질 결심’은 그동안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표현 방식을 선보여 온 전작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해외 영화관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경쟁부문 공식 상영 전날인 23일 칸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감독은 “인간관계 속 감정의 폭력성”과 “죄의식” 등 그동안 만들어온 핵심 정서를 바탕으로 “말랑말랑한 로맨스”를 그렸다고 신작을 소개했다.

-이전 작품과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다.
“이런 말 하면 다들 웃지만, 늘 로맨스 영화를 만들어왔어요. ‘공동경비구역 JSA’는 예외였지만,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였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리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심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5세 관람가도 문제 없이 받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서 꼭 폭력과 섹스가 담길 필요는 없어요. 고전적이고 우아한 로맨스 영화를 만들려 했죠.”

-여주인공을 탕웨이로 내세운 이유 하나.
“행사가 주인공인 작품을 생각한 처음부터 ‘깨끗한 느낌’의 박해일을 설정했어요. 함께 시나리오를 쓴 정서경 작가는 ‘그럼 여자는 중국인으로 하자. 그래야 탕웨이를 캐스팅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더군요. 저도 탕웨이의 팬이라 바로 좋다고 했죠. 탕웨이 캐스팅은 정말 절박했어요.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만나 번사처럼 즐거움을 함께 설명했죠. 하하!”

-“깨끗한 남자”의 의미는.
“마르틴 베르카는 스웨덴 행사가 주인공인 소설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르틴 베르카가 폭력적이고 예의 바른 행사인데, 박해일이 가진 (이미지처럼)무해하고 영혼이 맑으면서도 여딘가 영롱한 구석이 있죠. 박해일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특히 영화 ‘덕혜옹주’에서 보여준 의젓하고 기품 있는 면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가장 기대하는 반응은.
“영화는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배우 탕웨이가 24일(한국시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영화 ‘헤어질 결심’ 월드프리미어에 참석하기 전 레드카펫에 올라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칸(프랑스) | AP·뉴스스



바라이어터, 가디언, LA타임스(왼쪽부터) 등 해외 언론 매체들이 영화 ‘헤어질 결심’을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의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사진출처 | 각 매체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해일과 탕웨이가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예요. 사랑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이러한 사랑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었죠.”

“호불호”가 강한 영화를 만들어왔다는 시선도 있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나를 것 같지 않아 다행이에요. 하하! 전작들에 비해 자극적인 면이 없어 ‘심심하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전 영화는 있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전작들이 아닌,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심심한 영화도 아니에요.”

-늘 화제의 중심에 선다. 수상과 흥행을 기대하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나.
“당장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라 이후의 거창한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해요. 흥행이나 수상 같은 건 그 다음 문제죠. 가장 큰 걱정은 ‘이 영화에 투자가 될까’예요. 투자자를 설득하고 투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관문을 넘는 거죠.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2500여명 8분간 기립박수... 표 구하는 ‘피켓족’도 가장 많아

“길고 지루하고 구식의 영화를 환영해줘 고맙다.”
24일(이하 한국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신작 ‘헤어질 결심’을 선보인 이후 가장 많이 물려들었다. ‘명장’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신작으로 이날 공식 상영한 또 다른 경쟁부문 초청작 ‘미래의 범죄’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보다도 훨씬 많았다.

▶‘독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1면에서 이어집니다

대표팀은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가 속한 ‘삼바군단’ 브라질과 대결한 뒤 6월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와 맞붙는다. 이어 6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하고, 6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4번째 A매치(상대 미정)를 펼친다. 6월 이후 풀 전력을 소집할 기회는 9월

8분 동안 이어진 장내 박수 못지않게 극장 밖 열기도 뜨거웠다. 극장 앞에는 ‘표 구함’이라는 문구의 손 팻말을 들고 관람권을 구하려는 ‘피켓족’이 18일 영화제 개막 이후 가장 많이 물려들었다. ‘명장’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신작으로 이날 공식 상영한 또 다른 경쟁부문 초청작 ‘미래의 범죄’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보다도 훨씬 많았다.

▶독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1면에서 이어집니다

(2경기)이 사실상 마지막이라 벤투 감독은 이번 4연전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부상, 컨디션 난조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계속 최선을 다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표팀은 3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4연전에 대비한다. 손흥민도 이때 합류한다.

68차례 A매치(31골)에 나섰다. 2경기만 더 뛰면 의미 있는 기록을 추가하게 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칠레전이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독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한국남자축구의 센추리클럽 회원은 15명이다. 차범근 전 감독(136경기 58골),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136경기 10골),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127경기 5골), 김호근 수원FC 단장(124경기 5골),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100경기 13골), 이

인감독에게 주는 황금카메라상의 후보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정말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칸 국제영화제는 매년 황금카메라상 후보들에게 단 한 편의 경쟁부문 상영작을 함께 관람하도록 해 온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헤어질 결심’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독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1면에서 이어집니다

‘헤어질 결심’의 메인 투자자로서 크레딧에 제작총괄(Executive Producer)로 이름을 올린 이미경 부회장은 박 감독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했다. 상영 직후 박해일·탕웨이와도 가볍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